

디지털 기술의 리더! “UTOREX”

— 케이투엘전자 —



케이투엘전자 이형영 이사

유토렉스는 우수한 개발인력과, 디자인 연구원, 그리고 Highest Quality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과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국내외 소형가전 업계를 평정하게 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브랜드이다. 케이투엘전자는 "유토렉스" 라는 브랜드로 항상 고객에게 생활 속에 편안함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동안 다년간의 소형가전 O.E.M 전문 생산 업체로 고객여러분과 함께하며 끊임 없는 신상품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친 환경 제품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매직기(UHS-6300)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형 가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지만 강한" 토종브랜드가 있다. 케이투엘전자(www.utorex.com)가 바로 그곳이다. 1997년 대성전자로 시작한 이 회사는 면도기와 미용기구 등을 비롯한 각종 소형가전 생산에 주력하며 해당분야에서 국내 굴지의 가전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20년 넘게 면도기 업계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떨친 노하우를 합쳐 개발한 방수 면도기와 3날 면도기, 회전식 면도기 등이 시장에서 맹위를 떨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회사는 최근 자체 브랜드 "유토렉스"를 런칭, 면도기뿐만 아니라 이발기와 고데기, 자동차 용품, 애완 미용기구 등을 선보이며 사업영역을 다각화 했다.

“유토렉스”의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은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탈 정도로 단단한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다.

한동안 전기관련분야에 종사하다 묵묵히 25년 간 외길인생을 걸어 온 이형영 이사는 외국계인 필립스, 브라운, 내셔널 등 세계유수의 면도가 생산업체와 당당히 맞서 국내 및 세계무대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국내 굴지의 선두업체인 '조아스'에서 OEM(주문자 생산방식)생산에 주력했으나 지난 2004년도에는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기반조성에 주력했고 올해부터는 자체브랜드인 신제품 'UTOREX'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웰빙 문화에 편승해 종전의 순기능 외에 은나노 기술도입을 비롯해 공기정화기능, 살균소독기능, 센서기능 등의 복합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디자인도 화려하고 다양한 분위기 연출에도 한 몫 하는 등 장식품과 기능까지 갖춘 첨단 기능의 업그레이드 된 고품질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력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방수면도기 출시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앞으로 물에 잠기거나 했을 때 감전사가 없도록 전원자동차단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상품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



매직기(UHS-6600)

70~80년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개인적으로 흠모한다는 이형영 이사는 "세상을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에 한동안 심취해 있을 정도로 그의 경영철학에서 대우의 "탱크주의"정신은 깊게 뿌리박혀 있다. 이러한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제품의 완벽함은 유토렉스란 브랜드의 제품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세계 우수 기업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에서 뒤쳐지지만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이러한 약점을 개선해 나아갈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그

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도 손색없는 회사와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계시장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우선 국내 소비자들에게 100%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만족경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우체국 택배 시스템을 채택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형영 이사는 국내시장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점차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신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다짐이다. 현재 글로벌 공략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인 케이투엘은 소형 동영상 플레이어 샘플 500개를 유럽 전시장에 배포해 전 세계 가진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는 방수용 면도기를 유럽지역 및 미주지역으로 수출할 예정이

다. 또한 애견 미용기구와 소형 고데기 등의 제품을 일본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다.

이형영 이사는 사업주는 자신의 이윤추구보다는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직원을 한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덕망과 인성을 갖춘 리더이다. 한편 그는 얼마 전 중국 심청에서 현지인에게 자사 제품을 선물로 건네준 적이 있는데, 그의 고마움에 대한 장문의 편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보람을 느꼈으며 이때 자신의 일에 대한 정성과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엔 비록 미약하고 작은 규모이나 향후 2~3년 후에는 면도기 분야에서 소비자(고객)에게 인정받는 제품으로 거듭나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갖춘 리딩업체로 우뚝 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